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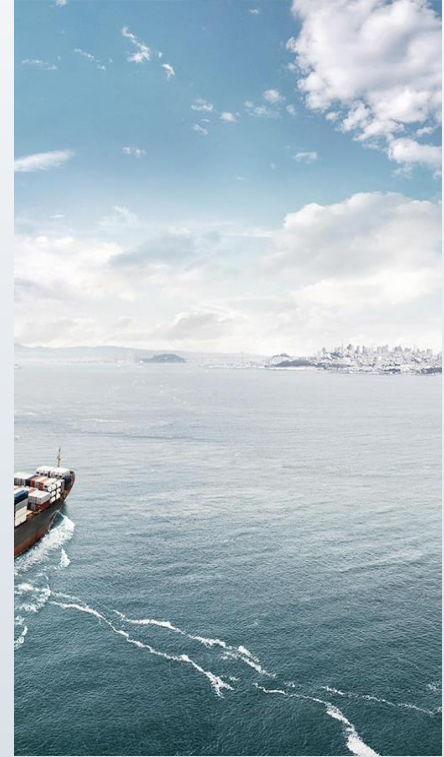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233

**Updated January 22,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조선사 연초 수주 릴레이...올해 목표 달성 '청신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연초부터 각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 2척을 수주하면서 올해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4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으며, 18일에는 오만 국영해운회사인 OSC로부터 VLCC 2척을 추가 수주했다. 이는 약 5억 5,000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VLCC 물량(16척) 약 40%에 육박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 15만 8,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4m·폭 48m로,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이다.

몇 년간 수주절벽에서 헤매던 국내 조선업계는 기술력이 관건인 액화천연가스(LNG)선과 VLCC를 필두로 지난해부터 수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 3사는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76척 가운데 66척을 수주하며 그야말로 LNG선 싸움이 행진을 했다.

조선 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올해 글로벌 발주량을 지난해(2,859만 CGT) 대비 20% 이상 상승한 3,44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망했다. 글로벌 발주량은 2023년에는 4,740만 CGT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조선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국내 조선 3사(현대중·대우조선·삼성중)는 일제히 올해 수주목표도 상향 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삼호·미포포함)은 올해 수주목표액을 178억달러로 잡았다. 조선에서만 지난해(132억달러) 대비 21% 높은 159억달러로 계획했고, 해양플랜트 부분은 추가 19억달러로 잡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주목표액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73억달러)보다 높은 8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월 이사회가 끝나고 내부적으로 수주목표액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I . ISSUE & TREND

삼성중공업의 올해 목표액 역시 지난해 보다 24% 증가한 78 억달러다. 이중 약 20 억달러는 해양부문이며 나머지는 조선부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조선 부문에서만 63 억달러를 따내며 목표액 51 억달러를 훌쩍 넘긴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강력해진 친환경 규제와 함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LNG 선 수요가 늘고,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VLCC 역시 낮은 국제유가와 함께 원유 수송량이 늘면서 간접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셰일 가스를 늘리고 있어 VLCC 발주 흐름도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 한진중 수빅조선소, 필리핀 VS 중국의 인수 줄다리기

필리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현재 운영이 어려운 한진 중공업의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필리핀 일부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1 월 14 일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이 뉴스는 미군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필리핀 일간지 데일리인콰이어러는 현재 빛더미에 올라 있는 한진해운이 필리핀 정부에 투자자를 찾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14 일에 보도했다. 이에 필리핀 투자위원회 책임자 세페리노 루돌프는 일찍이 중국 두 기업이 한진의 필리핀 조선소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 살바도르 파넬로는 브리핑에서 "이는 그들이 넘겨짚는 추측일 뿐"이라며 "한 회사가 파산했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느냐" 고 말했다.

앞서 알렉산더 파마 전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 기업이 수빅만의 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는 중국의 한진해운 인수 문제를 "비즈니스, 금융, 기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파넬로 대변인은 현재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 누가 인수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을 걱정하는가?" 라고 발언했다. 또 중국 회사가 한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수빅만 조선소에서 아직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현재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모두 뜬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회사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파넬로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어 "만약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라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 . ISSUE & TREND

중국 기업의 수빅조선소 인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미국 언론도 주시하고 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중국이 미국의 극동 최대 해군시설이었던 전략항구에서 상업적 입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14 일 보도했다. 이 항구는 미국 수빅만 해군기지로 불렸던 곳으로 미 해군이 1992 년 철수하기 전 수천 명의 미국 해병과 그 가족들의 거처였다고 말했다. 이 곳은 미국인들이 떠난 뒤에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해군 함정들이 수시로 정박한다.

1 월 16 일 미국 <해군시보> 주간지 웹 사이트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기업이 필리핀 최대 조선소 인수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조선소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큰 해군 기지였다고 전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소장 그레그 폴링은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어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한진의 수빅조선소를 누가 최종 인수할지 아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워싱턴의 안보부에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보도했다.

### 3. 日 이어 EU, WTO 제소 동참 검토 - 한국정부의 해운- 조선지원안에 제동

"한국 정부의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주요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독일 하파크로이트 최고경영자-CEO 로프 하벤 안센)

일본과 유럽이 한국 정부의 해운·조선 지원안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 소송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신규 선박이 발주되면 국제 해운 운임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 국가의 해운 산업도 정부 지원이 밑바탕이 됐다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 일본 유럽연합(EU) 공동전선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 피해 크다"

21 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11 월 한국의 조선 및 해운 지원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 월 19 일 양자협의를 나섰다.

## I . ISSUE & TREND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 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 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 에 분쟁해결패널(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토대로 패널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2 월에 패널 설치 후 공식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EU 도 일본과 한국의 양자협약에 제 3 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실상 일본과 EU 가 공동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일본과 EU 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4 월 한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과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한 각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일본은 한국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가며 조선소를 지원해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책 금융기관이 2015 년부터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금융 지원 △선박 수출 보증·보험 △선박 건조 구매·지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도 문제 삼았다. 해운사에 대한 신규 선박 지원이 결국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지는 만큼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2015 년 이후의 선박 금융 지원과 자금 대출을 어떻게 했는지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별관 회의라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덴마크 머스크사는 '현대상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견제하더라"고 전했다.

### ■ 분쟁대응단 꾸린 정부... 전문가들 "일본 승소 쉽지 않아"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로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꾸리고 일본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 성립하려면 크게 2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산업과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본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 승소가 쉽진 않겠지만 섬세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함께한 각종 기관들이 정부의 지시에 모두 따른 것도 아니고, 자체 판단에 의해 지원 사업을 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중국은 정부가 대놓고 조선사를 지원하는 마당에 오로지 한국 때문에 일본 조선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 I . ISSUE & TREND

제소국의 약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일본은 해운과 조선, 금융 투자를 하나로 묶어서 조선 해운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나서고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실상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런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유럽 선사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덩치를 키워 세계 해운시장을 주름잡게 됐다. 중국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 4. G2 갈등·EU 환경규제...IMF 세계 경제성장률

**3.7%→3.5%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약하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특히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점과 각국의 금융시장 심리가 악화된 점을 꼽았다. 미·중 무역 긴장감 지속, 미국 연방정부의 섀도우 정부화, 노딜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IMF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3.5%라고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독일을 비롯해 유로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한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0.3%포인트 낮췄다. 이탈리아는 금융리스크를 우려해 1.0%에서 0.6%로 낮췄다. 프랑스는 최근 거리 시위 등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내렸다. 특히 독일 전망은 1.9%에서 1.3%로 0.6%포인트 낮아졌다.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도입으로 독일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줄고 산업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자동차 회사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 일부지역에서는 노후 디젤 차량 운행도 금지되면서 유럽에 기반을 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다른 나라에서 제작해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 I . ISSUE & TREND

---

영국에 대해서는 1.5% 성장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올해 영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부양책이 상쇄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EU 탈퇴 예정일인 3월 29일까지 아무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영국 국내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5%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 잠재성장률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0.9% 전망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IMF는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점을 반영했다.

신흥개도국은 유가하락과 무역갈등 등 글로벌 요인과 국가별 요인을 감안해 4.7%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중국은 6.2%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국제적으로는 국제협력과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하고 국가별로는 재정과 금융완충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는 "아울러 "각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협력, 금융규제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 통합논의를 지속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야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완충여력을 보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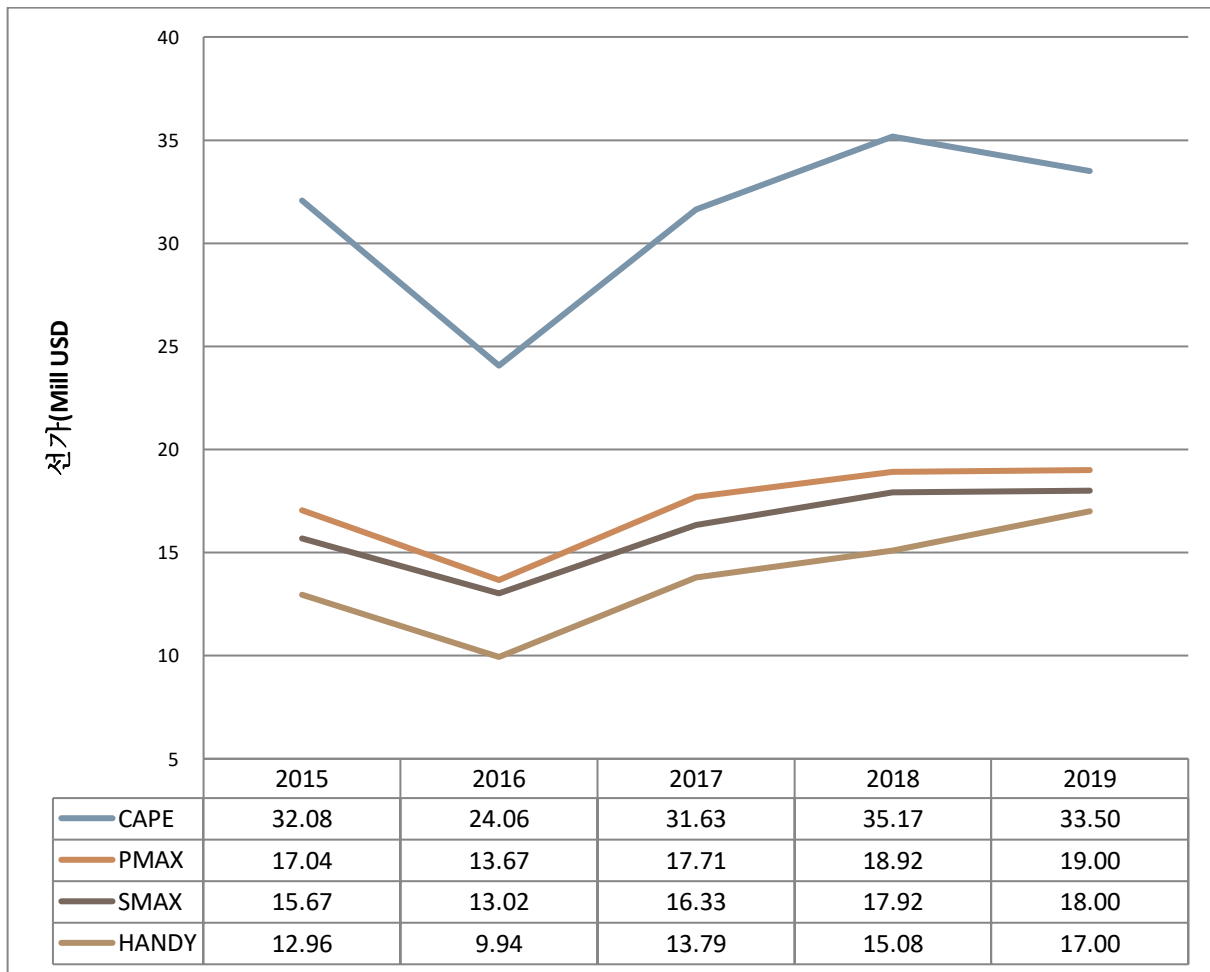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b>Capesize 180K</b>	32.08	24.06	31.63	35.17	33.50
	-31.45%	-24.99%	31.43%	11.20%	-4.75%
<b>Panamax 76K</b>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b>Supramax 58K</b>	15.67	13.02	16.33	17.92	18.00
	-36.04%	-16.91%	25.44%	9.69%	0.45%
<b>Handysize 37K</b>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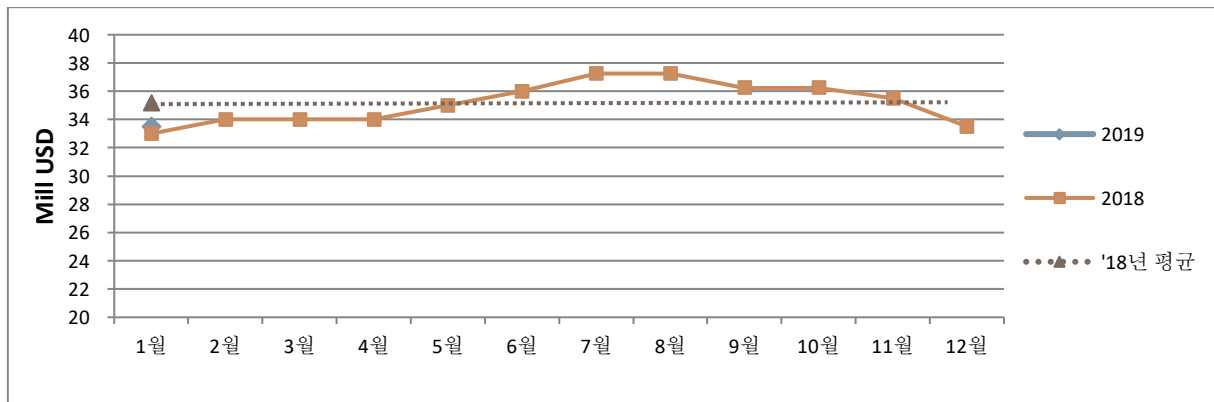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3.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5%						-4.7%
	PMAx 76k	선가	19.00						19.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2.7%						0.4%
	SMAx 58k	선가	18.00						18.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2.9%						0.5%
	HANDY 37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13.3%						-
		전년대비	21.4%						12.7%
2018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4.3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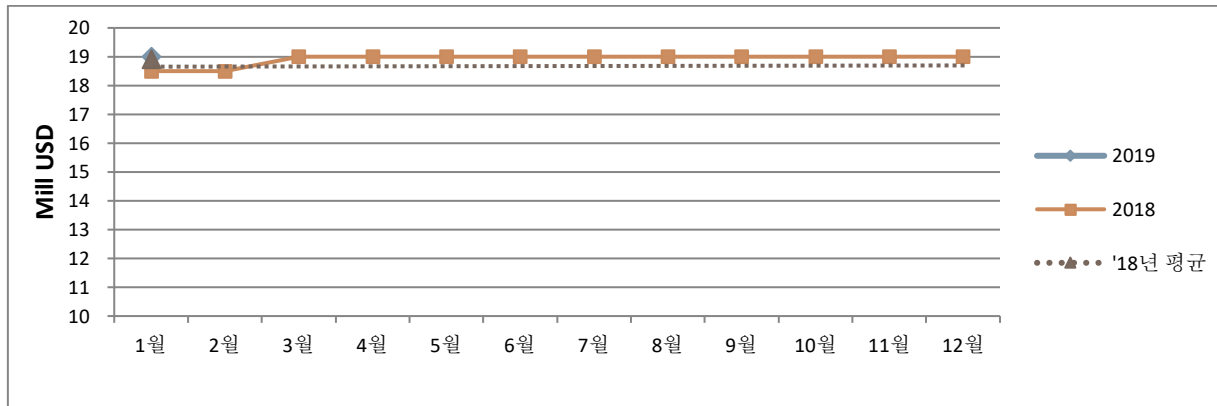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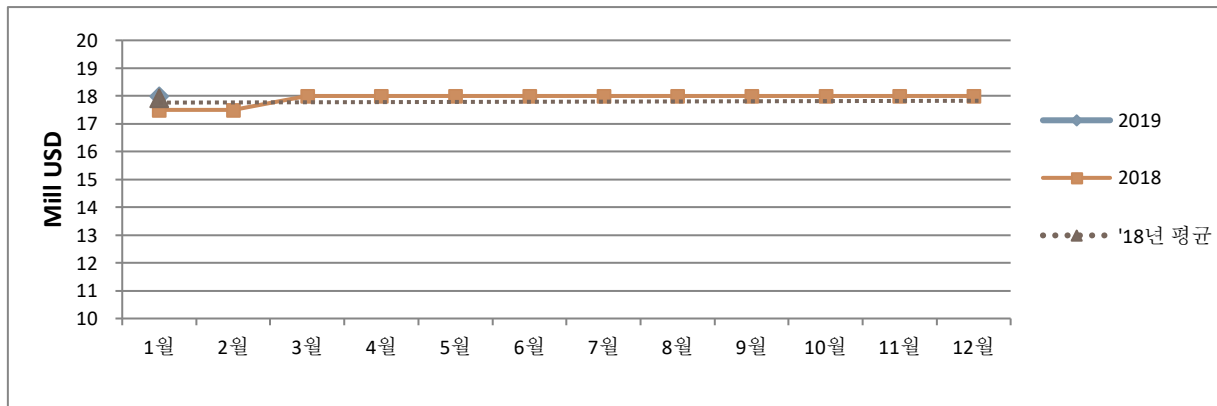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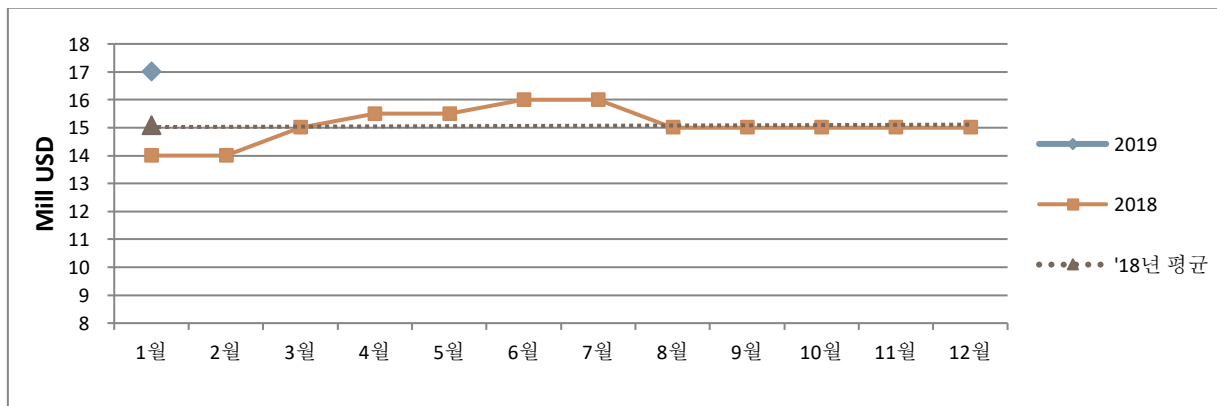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JIANGSU HANTONG HT82-199	82,000	2019	CHINA	B&W		27	German buyer
BC	GRAND AMANDA	79,467	2011	KOREA	B&W		12	Undisclosed buyer
BC	SAGE SANAGA	63,500	2013	CHINA	B&W	C 4x35t	20.5	Greek buyers (JME Navigation)
BC	LOCH NEVIS	61,272	2016	JAPAN	B&W	C 4x30.7t	24.5	Greek buyer
BC	SSI EXPEDITION	56,971	2010	CHINA	B&W	C 4x36t	12.4	Chinese buyer
BC	NANNING	38,940	2017	CHINA	WART	C 4x30t	abt 20	Chinese buyer - (CDBL) TC back
BC	NINGHAI	38,800	2017	CHINA	WART	C 4x30t	abt 20	
BC	GLORIOUS SUNRISE	37,718	2016	JAPAN	B&W	C 4x30.5t	18.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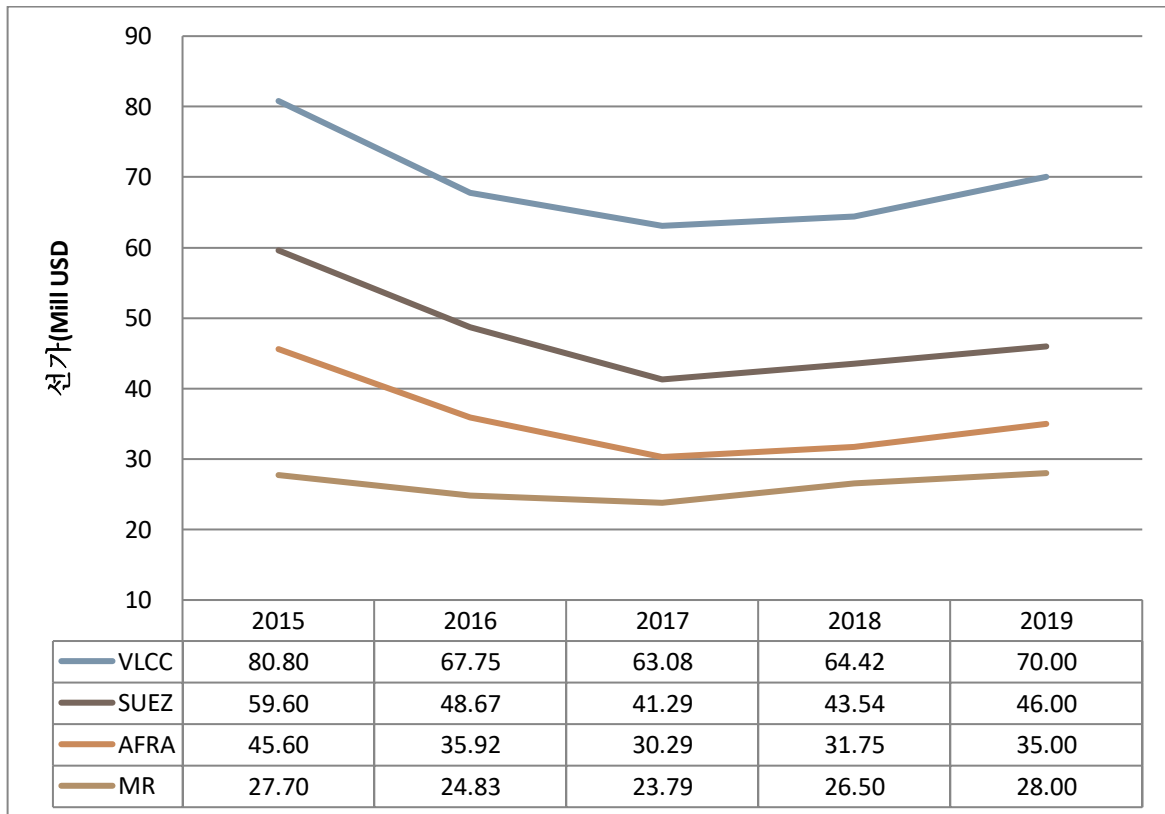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0.00
	9.04%	-16.15%	-6.89%	2.11%	8.66%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6.00
	17.32%	-18.34%	-15.15%	5.45%	5.65%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0
	-3.08%	10.45%	-10.78%	-5.20%	-6.54%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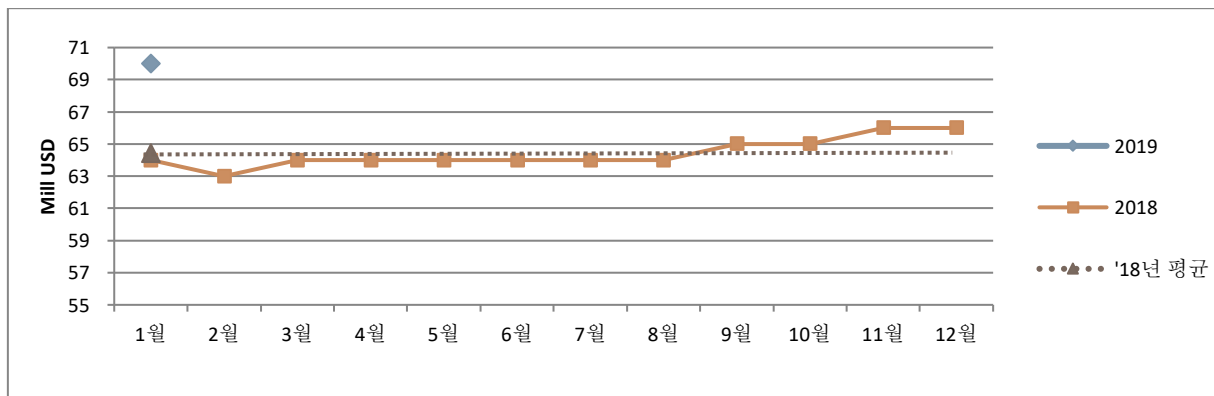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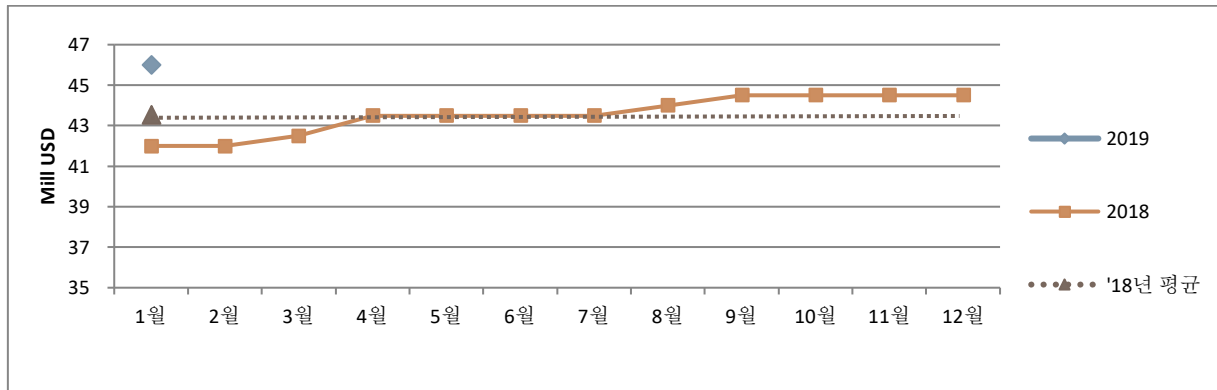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70.00
		전월대비	6.1%						-
		전년대비	9.4%						8.7%
	SUEZ 160K	선가	46.00						46.00
		전월대비	3.4%						-
		전년대비	9.5%						5.6%
	AFRA 105K	선가	35.00						35.00
		전월대비	6.1%						-
		전년대비	9.4%						10.2%
	MR 51K	선가	28.00						28.00
		전월대비	1.8%						-
		전년대비	12.0%						5.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5.4%						-6.5%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3.83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2.83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50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04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2.25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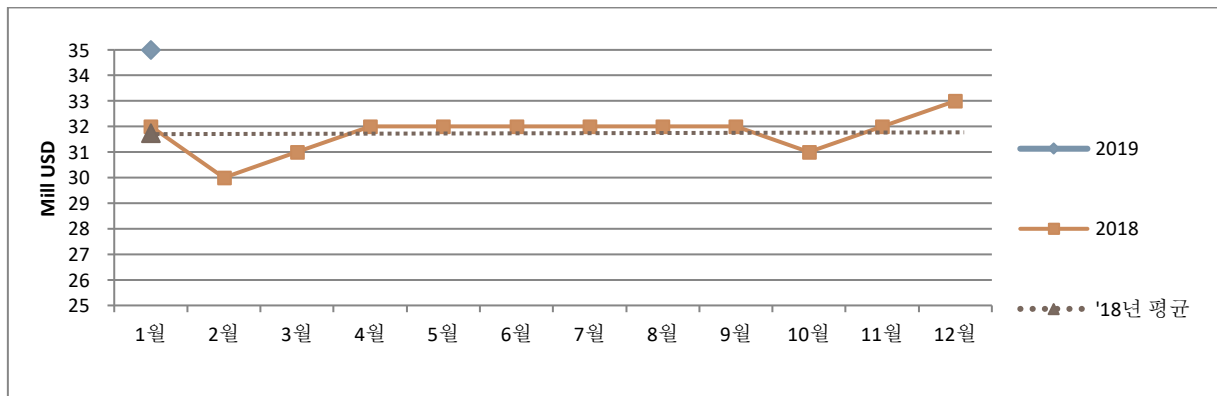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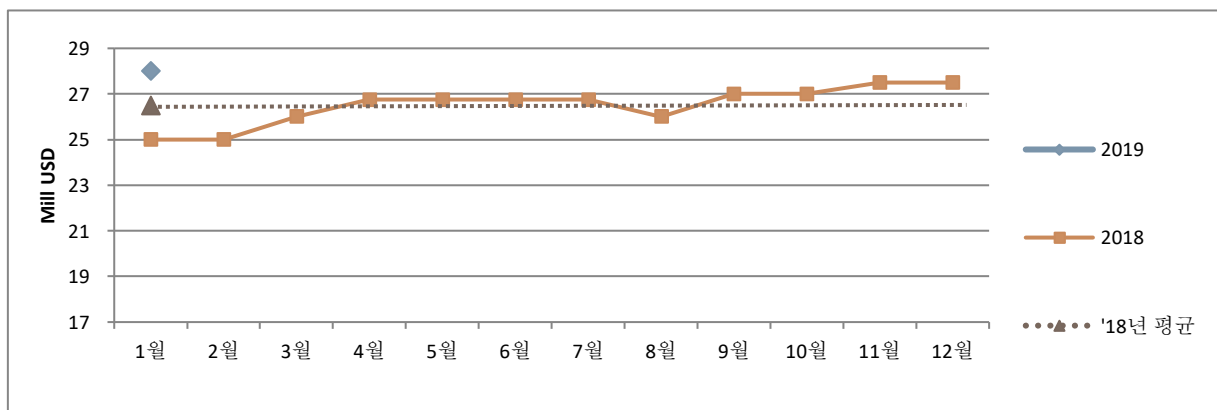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FELICITY	157,667	2009	KOREA	B&W		42	Japanese buyer (MODEC)
TANKER	MILOS	157,525	2016	KOREA	WART		56	Norwegians (Ocean Yield) \$ 7 mill credit, 13 years BBB
TANKER	HYUNDAI BINASHIN HULL 466	50,000	2020	VIETNAM (KOR)			34	Belgium buyer (TransPetrol Maritime Services)
TANKER	HYUNDAI BINASHIN HULL 472	50,000	2020	VIETNAM (KOR)			34	Chinese buyer
LPG	OCEAN ORCHID	49,995	2001	JAPAN	B&W		24	Middle Eastern buyer
LPG	GAS JASMINE	49,618	1990	JAPAN	B&W		10	Chinese buyer
OIL/CH EM	XINGHANG 22	11,780	2019	CHINA	B&W		3.1	Chinese buyer (China Development Bank), Auction Sale
OIL/CH EM	XINGHANG 21	11,780	2019	CHINA	B&W		3.1	China Development Bank Auction Sale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TAMMO	16,856	2011	CHINA	B&W	1345	TEU	8.5	Greek buyer
CONT	ARIAN	16,856	2011	CHINA	B&W	1345	TEU	8.5	(Cont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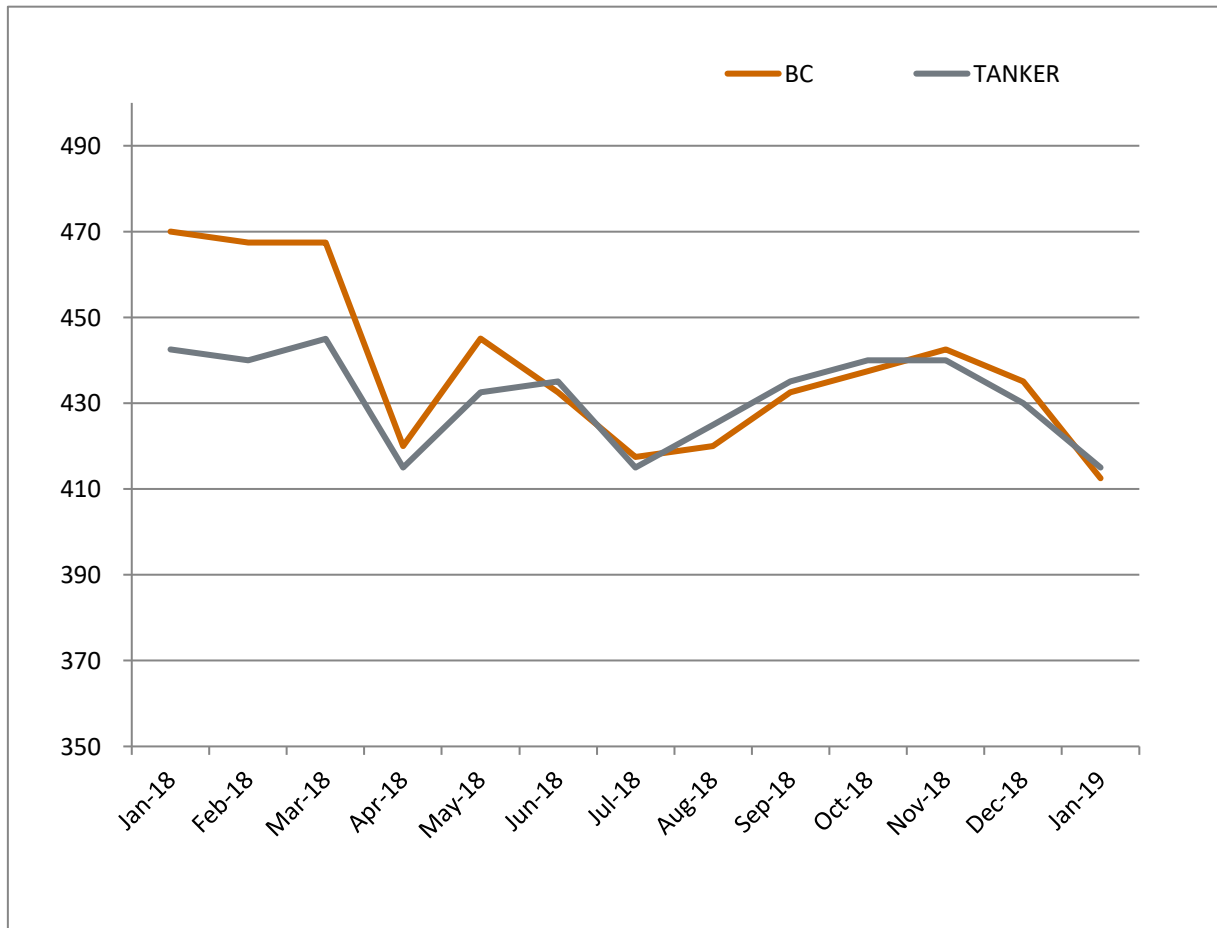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 월	2019 년 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15.00	-4.1%	442.50	415.00	-3.5%	-6.2%
BC	370.83	38.5%	440.63	18.8%	412.50	-6.4%	470.00	412.50	-5.2%	-12.2%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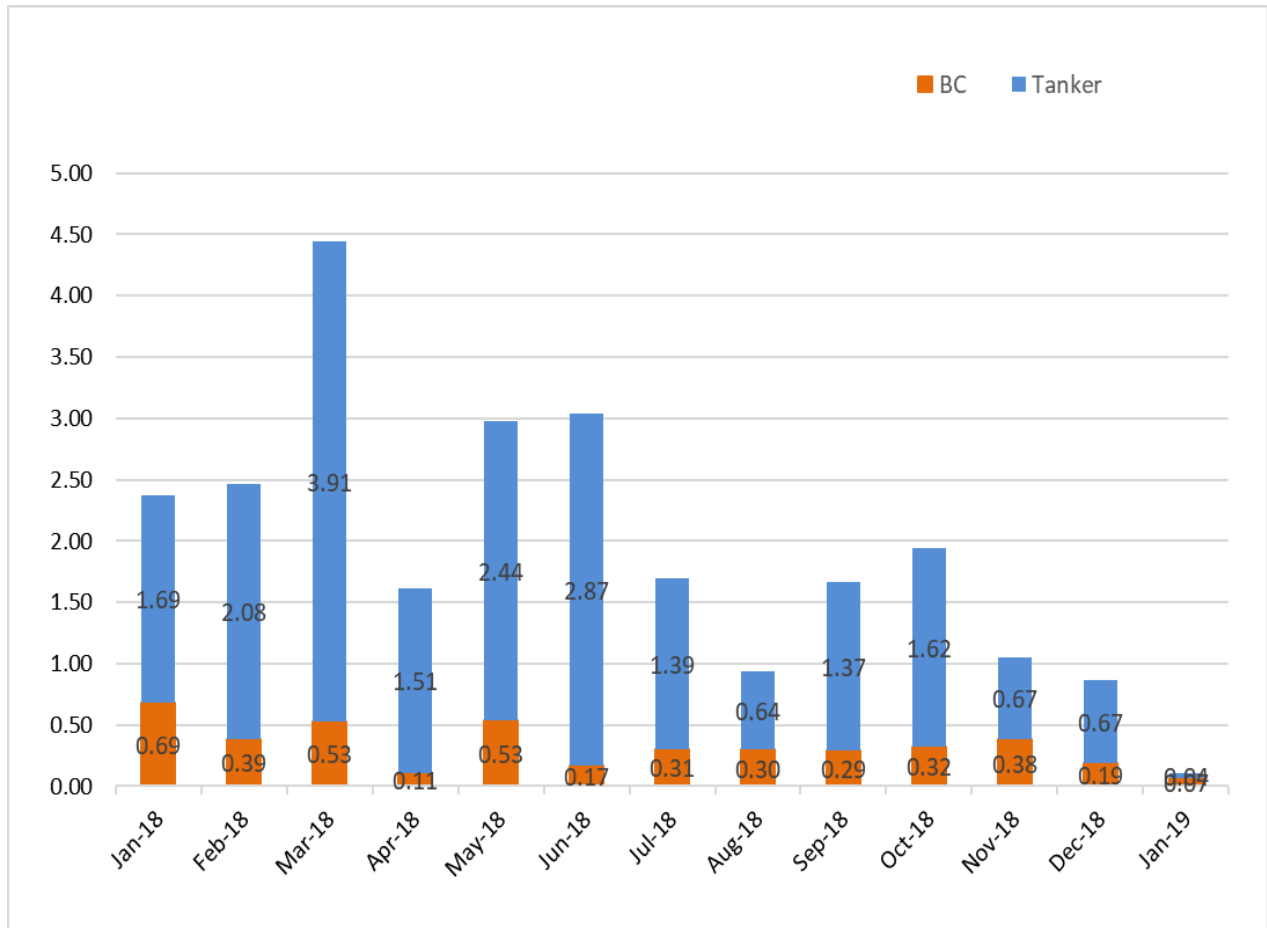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1 월		2019 년 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0.04	0.2%	4	2.1%	1.69	23	0.04	-97.4%	4	-82.6%
BC	4.20	112	0.07	1.5%	3	2.7%	0.69	11	0.07	-90.5%	3	-72.7%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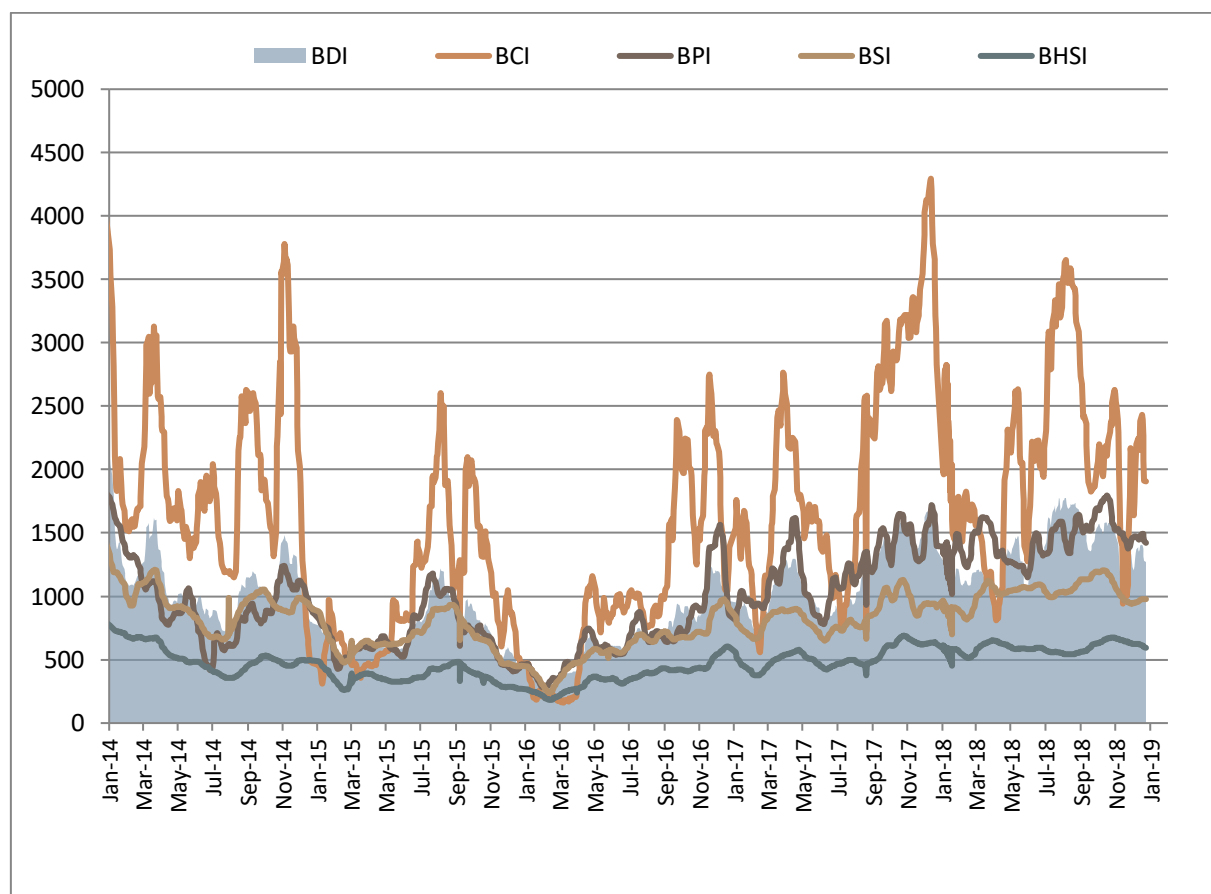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SC MIRELLA	25,900	11,020	1989	CROATIA	B&W	440	INDIA
CONT	BOXY LADY	18,447	6758	1996	POLAND	B&W	460	INDIA
TANKER	MARONI	38,565	8948	1981	JAPAN	B&W	425	BANGLADESH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9-01-18	2019-01-1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12	1169	▼-57.00	1774	290
BCI	2037	1966	▲71.00	4293	161
BPI	1018	1137	▼-119.00	1796	282
BSI	701	842	▼-141.00	1209	243
BHSI	451	524	▼-73.00	715	183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04.00	▼-3.00	359.00	▼-1.50	377.00	▼-3.50
IFO180	446.50	▼-24.00	395.50	▼-8.00	436.00	▼-6.00
MGO	569.00	▲5.50	516.50	▲12.50	583.50	▲10.50
LSMGO	576.00	▼-4.50	542.00	▼-3.50	-	-

❖기준일 : 1 월 18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9-01-18	2019-01-11	CHANGE
미국 달러	1121.40	1118.90	▲2.50
일본 엔(100)	1027.35	1031.96	▼-4.61
유로	1277.16	1286.90	▼-9.74
중국 위안	165.67	164.60	▲1.0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STL NEWS & INFORMATION

### [설민생대책 - 설에 즐기는 알찬 문화생활]

설 연휴를 맞아 경복궁 등 주요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할인행사도 마련됐다.

- 설 연휴 기간인 내달 2~6 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 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 14 개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공연이나 체험행사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과 4 개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행사
- 국립 해양생물자원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천·덕수궁관 무료 개방/국립국악원 공연 체험행사 운영
-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연계 행사 기획
  - 서울~지방 노선버스 이용권 구매시 1+1 할인 혜택
  - 지역리조트·템플스테이 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한국의 맛 쿠킹클래스' 및 한복·공예·전통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이벤트
- 설 연휴 전후 지역별 '맞춤형' 축제 열려.. 체험행사, 숙박, 음식 특산물 등 할인
  -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강원 화천)
  -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충남 청양)
  - 이월드 별빛 축제(대구 달서구)
  -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에서 체험행사, 숙박, 음식 특산물 최대 20% 할인
  - 인천 포내, 울산 주전, 양양 수산, 서산 중리, 함평 돌머리 등 어촌체험 마을 5 개소 선정해 겨울철 식도락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겨울에 떠나는 섬 관광 10 선
  - 걷기 좋은 섬(신안군 흑산도 등)
  - 지역 대표 섬(통영시 옥지도 등)

## VI. STL NEWS & INFORMATION

---

- 작고 아름다운 섬(완도군 소안도 등)
- 28 세 이하 청년층 대상 뱃삿을 할인하는 '바다로 티켓' 사용자 인증 상품 증정 행사 개최

### ■ 믿고 즐기는 산천어축제

2019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 3 주째로 접어든 20 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이 얼음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다. 산천어축제는 오는 27 일까지 열린다.

### ■ '근로자휴가지원제' 참여자 대상 프로모션 진행

근로자휴가지원제란 근로자(20 만원)·기업(10 만원)이 휴가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보조(10 만원)한 금액으로 전용 쇼핑몰을 통해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실·스키 강습·수영장 이용·식권 등이 포함된 1 박 2 일 겨울 스키캠프 프로모션을 정상가보다 66% 싼 1 인당 17 만원에 즐길 수 있다. 태백 한우구이가 포함된 태백산 눈꽃축제 참가비용을 1 인당 8 만원에서 5 만원으로 할인한다. 28 일~내달 8 일 숙박 예약 근로자 선착순 100 명에게는 1 박당 2 만원의 할인권을 준다. 적립금을 사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시태그(#근로자휴가지원사업)를 달면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출처: 연합뉴스 2019.01.22]



## VII. CONTACT INFORMATION

---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ally Kim (김윤희 사원)**  
 Tel. 070-7771-6403  
 Mob. 010-3161-5964  
 snp@stlkorea.com  
 sally@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